



- 제직세미나
- 주안예라이프
- 교육부 / 교구 소식
- 간증 / 칼럼

주안예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n-christcc.org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 추수감사주일 예배

11월 24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지난 11월 20일 주일예배는 추수감사예배로 드려졌다. 성인예배를 비롯 ICKIDZ, ICY 모두 다른 주일과는 구별하여 특별한 프로그램과 마음을 담아 정성껏 예배를 준비하였다.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과일들로 강대상을 장식하고 아이들의 감사카드가 걸리기도 했으며 여전도회를 주축으로 풍성한 점심이 준비되기도 하였다.

최혁 담임목사는 신명기 8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본문을 기초로 풍요의 땅 애굽을 등지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결핍의 땅 “광야” 40년 세월을 한결같이 먹고 마시고 입고 신은 의복이 헐지 않게 공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말씀과 풍요로움 속에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것보다 결핍을 통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깊고 강하게 만드는 것이 참된 복이라고 설교하였다.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물질의 노예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됨을 위해 결핍을 마다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진정한 보장을 받을 것이다.

이른 아침 제법 굵은 빗발을 헤치고 좀더 마음을 더하여 1,2부 모두 참여한 성가대원의 가을밤새 풍기는 웃음은 성가와 어우러져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또한 나 이외에 누군가와 함께 나누자는 취지로 넉넉한 도시락을 준비해보기로 했던 ICKIDZ는 평일 아이들 점심도시락 준비하는 것도 힘든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는 어머니들에게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ICKIDZ 학부모님들 대부분이 2개의 도시락을 준비해 오병이여의 기적처럼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와 스태프 가까이 계신 구역식구들까지 맛보기에 충분했다.

(11면에 계속) | 채은영 기자 |







“기도와 말씀으로 많은 직분 기쁨으로 감당”

■ 제직세미나

지난 11월 13일 오후 2시30분 주일예배 후 벨리채플에서 행해진 ‘제직 세미나’에 임명된 직분자들은 주안에교회 봉사직에서 봉사할 마음가짐으로 모인 사람 반, 또 다른 반면에 감사 목사님의 설교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으로 3개 채플에서 모인 분들로 벨리채플 교회의 분위기는 가득찬 느낌!! 꼭꼭이, 툼툼이 빈자리 없이 꽉 매워진 열기 속에서 찬양곡들로 예배 시작 전의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세상의 일들에서 떨어져 나와 하나님께로 향하여 주님주신 말씀을 붙들고자 감사 목사님을 기다리며 차분히 임한 가운데 감사의 함성, 박수와 함께 박성규 목사님께서(주님세운교회) 강단에 올라오셔서 멋진 답례를 해주셨습니다. 유머스럽고 말씀 속에서 항상 기쁘게, 감사함

으로 살아오신 탓이었을까요? 겉으로 보이는 외모는 연세에 비해 젊어 보여 놀라움을 자아냈고 ‘역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신부되심으로 살게 되면 젊음을 유지할 수 있구나’ 하고 미소 지어보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싸인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분별력을 갖고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마음으로 일하는 곳이 교회임을 언급하시며 교회를 영혼의 병원으로, 목사님을 수간호사로 비유함에 웃음을 터트리기도 하였습니다. 서로 상처받고 마음 아픈 병자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하며 하나님은 믿고 찬양할 대상이요, 사람은 사랑으로 덮어야 할 대상, 물질은 우리가 다스려야 할 대상, 사탄, 마귀는 목숨을 다해 싸워야 할 대상이라 정의하시며 주님을 바로 믿고 따라가야 함을 강조하시는 말씀 속에 다시 한 번 우리들의 교회에

서의 삶이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아보며 자신의 성품을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주님이 내 안에서 온전케 활동하시게 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만이 영적 승리를 거두며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은혜의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음을 감지해 보았습니다.

우리 제직자들은 피곤해하고 약해지면 사탄이 공격해오므로 적극적이고 뜨거운 신앙관으로 예배의 본이 되어야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요5:24) 구절을 암송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함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12면에 계속〉 | 오윤선 기자 |

3개월간 알찬 배움... 멋진 솜씨 뽐내기

■ 주안에라이프 종강식

11월 16일 12주간에 걸쳐 진행되었던 주안에 라이프 가을학기를 뱅킷 프로그램으로 마무리 했다.

매주 이 행사를 진행하신 이미란 전도사님과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을 만들어 주신 박현동 목사님, 매주 시작기도를 해 주신 김재주 국장님, 마지막 시간까지 주방에서 분주히 장금이 실력을 보여준 주방crew들... 도움이 필요한 자리엔 언제나 사역자분들과 간사님들이 계셨다.

발표하는 날, 고전무용을 시작으로 영어,색소폰 연주, 바이블 교실의 정진영 성도의 간증은 모두에게 감동을 준 시간이었고, 이영식 장로의 하모니카 연주, 크리스티나김 집사의 키보



드 연주반, 라인댄스의 여왕 서정아 전도사, 황영옥 권사의 오토하프반 연주, 오병순 피택 권사의 기타/노래교실반, 이용화 권사의 편물반에선 멋진 패션쇼를, 끝으로 이영식 장로의 건강댄스로 마무리를 했다.

최혁목사님께서 감사들과 주방 봉사자들에



게 그동안 수고하셨다며 깜짝선물을 주셨다.

모두가 내년 봄 학기를 3월 첫 날에 시작함을 알리고 그동안 모든 어르신들께서 12주간의 잘 지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끝을 맺었다.

| 오병순 기자 |

■ LA채플 '주안에만남'



“CD말씀의 감동... 이젠 한가족”

* 남미에 살고 있을 때 최혁목사님 설교 CD 하나를 구해 듣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돌려가며 듣다가 LA로 이주를 하게 되었는데 최혁 목사님에 대해 수소문을 하다 최혁목사님 교회가 LA에도 있다는 말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 왔습니다.

* 최혁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러 벨리로 몇 번 갔었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 못하고 있던 중 LA에도 주안예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출석하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 동부 뉴저지에서 한 예배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데 지난해 전순성 장로님의 요청으로 주안예교회에서 CD 100장을 보내 주셔서 나눠 들으며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LA 친지 집에 방문으로 왔다가 LA에 주안예교회가 있다는 말을 듣고 한 1년간 주안예교회에 출석하며 많은 은혜를 받고 배워가지고 가서 그곳에 돌아가 그곳 교우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결심하였습니다.

* LA shatto 길에 있는 학원의 원장님이 몇몇 학부모님들과 교류를 하던 중 최혁 목사님 CD를 듣고 감명을 받아 4가정이 함께 LA 채플로 출석하게 되었다며 12세 된 딸과 함께 주안에만남 시간에 참가했는데 주안에 교회 역대 “주안에 만남” 참

가자 중 최연소자라 합니다.

이상은 11월 20일 LA채플 “제3회 주안에 만남” 시간에 참석하여 나눈 말씀들 중 일부입니다.

오랜만에 내린 비라 반갑기도 하지만 주일예배 마치고 집에 갔다가 주안에 만남시간에 참석하기 위하여 다시 교회로 오기에는 불편한 날씨였는데 주안예교회 LA채플에 출석하게된 기쁨과 환희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 참석했다는 이야기들이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아름답게 장식된 친교실에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나누며 화기애애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한 새신자국 국장님과 여러 봉사자들의 수고가 돋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최혁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또 찾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며 매주 몇 번씩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축복 받은 성도들인가를 새삼 깨달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또한 우리들이 어떻게 전도 할 수 있는가를 깨닫게 하는 모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저 CD 한 장이라도 전해 주며 “들어보시고 은혜 받으세요”. 이 한마디면 된다는 것.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말입니다.

| 나형철 기자 |



따뜻한 섬김·사랑 가득한 ‘땡스기빙 밥상’

■ 한어청년부 ‘밥상을 부탁해’

11월 24일 추수감사절에 이방길 장로님 댁에서 청년부들을 위해 특별히 "밥상을 부탁해"라는 모임을 가졌다.

미국의 큰 명절중 하나인 추수감사절을 맞이해 이곳저곳으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는 청년들도 있지만 혼자 외로히 보낼 유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해 점심 식사 및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모임이 진행되었다. 매주 보던 청년들도 있었지만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도 있어서 굉장히 기대되었다.

오전 11시부터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했고 너무 좋은 날씨 덕분에 탁 트인 마당에서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우리보다 먼저 오신 여러 권사님들의 귀한 손길로 미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추수감사절 음식을 먹



었다. 꽤나 큰 사이즈의 칠면조를 보고 모두들 놀랐고 사진을 찍으며 맛있게 먹었다. 청년들과 함께해주시기 위해 오신 담임 목사님과 여러 사역자님들이 고기도 구워주시고 청년들을 섬겨주셨다.

점심 식사 후 게임 및 레크리에이션을 김혜연 자매와 김지연 자매가 진행해 주었다. 이날 처음 온 청년도 있었고 새가족 교육 중인 청년들도 있었기에 다들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4개의 팀으로 나누어서 스피드 퀴즈, 성경말씀 찾기, 이구동성 등등 재밌는 게임으로 각 팀의 끼를 발산할 수 있었다.

게임 후 단체사진을 찍고 담임목사님께서 앞으로 주안에교회 청년부의 방향에 대해 얘기 해주셨다. 그리고 특별히 어제 박상현 형제가 생일이어서 간단하게 생일축하를 해준 뒤 케익을 나눠먹으며 마당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다.

오후 4시가 다 돼서야 모든 프로그램이 끝났고 장소를 제공해주신 이방길 장로님과 이혜령 권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목사님의 기도로 모든 순서는 끝이 났고 다음을 기약하며 헤어졌다.

너무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외로울 수 있을 미국의 대명절에 청년들을 섬겨주신 손길들에 감사를 드린다. 내년에는 더 풍성한 "밥상을 부탁해"를 기대해본다.

| 이정현 성도(한어청년부) |

‘할로윈은 잊어라’ 신나는 게임 행복한 동심

■ 할렐루야나잇

10월의 마지막날인 31일 세 채플 모두 "할렐루야 나잇"을 가졌다. 금년에는 31일이 월요일이었기에 가족 모두가 교회에 나와 함께 참여하며 아이와 게임을 즐기는 "패밀리 나잇"로 이루어졌다.

매년 10월 31일은 할로윈 데이, 단순히 아이들이 밤에(trick or treat)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교회에서 대체용으로 하는 행사보다는 부모, 자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으로 만들고 결국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가 같이 협력해서 세워져야 한다는 주된 목적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사전에 각 채플 교육부 스텝 모두와 Youth Volunteers의 많은 준비가 있었다.

또한 아이들은 그 전부터 분주히 움직이며 만들었던 초대장으로 주위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도 초대해 함께 게임을 하며 즐거



운 시간을 가졌다.

Bean Bag Toss, Mini Bowling, Mini Golf, Guessing Game, Face Painting, Cup Tower, Magnetic Dart, Infinity Ball, Tie-tac-toe, Photo Booth, etc.

모두가 함께 참여하며 만든 게임들, 그리고 저녁식사 등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아니한 그 귀한시간에 비록 밖의 세상은 어둠으로 묻혀 세상 사람의 대다수가 각자의 자유 의지 표현



과 개성으로 무너져 버린 세상속으로 휩쓸려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노아의 방주 안과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확실히 아는 아이들로서 다음세대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어른이 먼저 믿음의 본보기가 되기를 다시한번 간절히 바라며 10월의 마지막 끝자락 밤을 교회에서 보내게 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

| 박희정 기자 |



정경남 성도 저는 주안교회 나온지 이제 겨우 1년 반되는 철없는 소녀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번에 저에게 신임 서리집사로 임명해주셔서 11월 13일 처음으로 제직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박성규 목사님 말씀 중에 제직은 교회에 기둥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에 아싸!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같이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는 철부지가 어떻게 교회의 기둥이 되겠습니까? 만약 저의 부족함으로 행여라도 우리교회 기둥이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제가 기둥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오니 제발 도와주세요.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 더 잘 배우고 따르며 목사님 설교 중에 절대 졸지 않을 것입니다. 철없는 저를 신임서리집사되기까지 도와주신 구역 식구들께 감사하며, 우리교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튼튼한 기둥이 되어주신 모든 제직 임원들께 고개숙여 감사를 전합니다. 주안교회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강산입니다.



김헬렌 권사 감물처럼 흐르는 2016의 삶 속에서 올 해는 그 어느때보다 감사의 조건을 많이 찾게된 것이 감사 자체입니다. 무엇보다도 훌륭한 영의 지도자로부터 참 진리를 배우게되어 그 걸음마를 하게 된 과정이 감사했어요. 덕분에 온 하나님의 사랑을 승화시키도록 노력하게 해주셔서 평범한 일상에서도 매일 기대감을 가지고 5월의 신록처럼 싱그러운 내적기쁨을 키우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 중의 감사지요. 가정적으로는 큰 기도제목의 숙제였던 친정 형제 기간에 화목 화평을 누리는 큰 감사를 맞은 것이 저에게는 흥해를 건넌 큰 기쁨을 맛보게 되었지요. 아울러 약 3:18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의 말씀이 제 자신의 것이되는 화평을 체험케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게 되었지요.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드리고요. 구름이나 바람처럼 주안 에교회의 목회자님들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이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외의 많은 감사의 말씀드릴 것이 많지만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 드리며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해 주시는 주안에교회에 감사합니다.



권현숙 권사 올 한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먼저 플러튼에 새 성전 주심에 감사, 내 교회에서 새벽기도 드리니 감사, 매주 좋은 식사하며 교제하니 감사, 야외에 배때(날씨로) 원보이스를 통해 합심기도하고 기도응답을 맞보게하심 감사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안에교회를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안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온교인이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며, 성령충만한 교회가 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유금희 성도 몸,마음이 힘든 중에 두 번째 성경통독을 통해 평안과 치유의 은혜를 체험케 하심과 한 해를 은혜로 마감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Joel Kim (EM) Throughout 2016 there were many blessings, but out of all of them is the community of the church. They helped me reclaim my faith in Jesus Christ once again and thus I was able to be forgiven of my sins. No matter the difficulty they were always there for me as brothers and sisters of Christ.



안경숙 피택권사 그 어떤 해 보다 다사다난했던 한해였기에 더욱더 감사한 내용이 많습니다. 난소에 혹물이 생겼다가 5일간의 간절한 기도 후에 없어지게 하심을... 남편을 순간순간 지켜주심을... 두 아들이 주일 성수 잘 하도록 지켜주심에... 성가대 맡겨주신 임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심에... 주 안에 라이프에서 아무 사고 없이 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심에... 구역장으로 구역식구들과 한지체로 잘 지낼 수 있도록 하심에... 힘든 상황에 처했을때에도 좋았던 추억을 생각하게 하심에... 어려움 잘 극복하고 내려놓게 하심에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Eric Kwon (CY) This past year I was really thankful for the people around me. They helped me whenever I was needed it, like in times where I wasn't doing well with relationship with God. I was really glad that I have someone like them always there to support me and also, watching them grow in faith and helping me with my faith. I would really like to thank God for putting these people here for me.



강영순 집사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이슬같은 은혜로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딸네 가족 아들에 가족 손주들 모두 한 동네에서 가까이 살게 하시고 서로 기도하며 예수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은래 장로 지난 한해를 돌아보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심과, 그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정희 권사 2016년 한해를 뒤돌아보면 매일 매일 감사한 일로 살아왔는데 막상 감사한 것을 생각하려니 어떤일인가 생각해보입니다. 가장 큰 감사한 일은 하나님의 교회인 주안 에교회로 저희 가정을 인도하여 주신겁니다. 첫방문 예배 때부터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회개하며 눈물이 흘려 손으로 닦던 은혜의 시간을 주셨고 지금까지도 말씀의 은혜로 매주 일마다 화개케 하는 말씀을 듣게 주안에교회로 인도하여주신 것이 올해 가장 큰 감사인 것 같습니다.



이용화 권사 지나간 한해를 돌아볼 때 나는 부족하였지만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연합·은혜의 에클레시아!



송단아 권사 올해는 감사가 입에 붙은 감사의 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삶의 여정을 인도해주셨습니다. 교우들의 기도 덕분에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고 남편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뜻한 손길로 많은 은혜를 베풀어주신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한영선 집사 올 한해 가족의 건강주시고, 아들이 RT(호흡기치료) 공부 마치고 자격증을 따게 하심 감사합니다.



배이레 성도(ICY) 2016년 이 한 해동안 예수님을 잊지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무엇을 하든 어떠한 어려움이 저한테 찾아오든 항상 끊임없이 동행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박상숙 권사 살아계신 나의 왕, 우리의 왕!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올수 없는 금년의 감사주일을 지내며 새롭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감사함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크신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주 안에 가족을 주심입니다. 또한 주의 말씀이 주인되신 교회를 감사합니다.



강요숙 권사 항상 감사, 감사, 또 감사드리며 생활하는 일상입니다. 교회에 차고 넘치는 축복을 주시리라는 믿음에 감사, 개인적으로는 항상 남편을 회복시켜 주심에 또 감사, 정하신 시간에 은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허명순 권사 한해를 풍성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늘 말씀으로 성령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Joseph Kim(EM) When I look back on 2016, a year filled with ache and discomfort, but also a year with answered prayers and miracles, I thank you God for not giving up on me, but rather gripping my hand tighter when I want to slip away, bringing me back when I flew astray, keeping me alive although I wanted to pass away, I thank you God.



Shane Kim (ICY) I'm thankful for the hope God has given me. My whole life I would be blessed with those in my life. Family has supported me and introduced me to God, friends have been there to hear me out and encourage, those that hate me have tested my faith but ultimately strengthening it and my relationship with God. In which I can be who I am today and be satisfied with my God in my days.



김은영 집사 올해는 유난히 은혜가 넘치는 특별한 일들이 많은데, 먼저 남편 김다솔 집사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됨과 제가 찬양팀에 조인해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고. 매일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전지연 권사 오색으로 물들어가는 그림같은 산과 들, 맑은 푸른 하늘을 바라보니 무지한 내가 시인이 된다. 주님은 이번 가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풍성한 오곡백과로 배를 채워주시며 주일마다 영의 양식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은혜받게 하시니 이 어찌 감사하지 않으리요! 또한 기쁨과 슬픔의 가치를 같이 나누며 떡을 함께 나누는 주안교회와 있어 더없이 행복합니다. 아~ 아~ 아름답고 고마운 기율여사. 만만가지 은혜를 감사하며....



신현석 성도(한어청년부) 예전엔 그렇게 교회에 가기 싫어했었는데, 이젠 교회에 너무 가고 싶어하는 저를 보면서 참 신기합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의 능력없는 불가능하고 저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주안교회를 들어온지 얼마 안됐는데 찬양팀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최근에 성가대도 허락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많이 크는 저의 모습이 놀랍습니다. 학생으로써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과, 일, 찬양팀을 하는 시간이 만만치 않아서 힘들고 지칠 때도 많았는데 그 힘들고 지침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으면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힘든 스캐줄도 평화롭게 흘러가더라구요. 미국에서 2년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걸어오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느끼게되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절대로 까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앞으로 살면서도 어떤 시험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Julian Jung(LA) I am thankful for everything God has given me including a supportive family, amazing friends, and church leaders. I am thankful that God led me to meet all these people in my life to help me out with all these things I go through because no matter how tough you are if you don't have a partner or family you won't last too long. All these people that I've met over the years contribute to the things that make me who I am whether I like it or not and that will never change, thankfully. And usually when its thanksgiving I just think of it as another school break and the stuff myself, but this thanksgiving will mean much more, and now I have a lot more family members to spend it with.

예쁜 마음 담아 ‘Thank You God!’ 즐거운 잔치

■ 추수감사절 뱅킷

11월 셋째 주일(11/20) 세 채플 교육부에서 각각 추수 감사절 뱅킷이 있었다. 유아부를 비롯하여 아동부, 중고등부에서 이루어진 뱅킷은 채플 각자가 조금씩 다르지만 일 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카드를 쓰는 시간을 통해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다시 한 번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며 아이들은 각자의 예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렸다.

또한 아이들이 하나씩 가져온 과일과 초콜릿을 예쁘게 포장하고 그 위에 앙증맞은 리본을 결들이고 감사카드를 적어 유스 아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색하고 서먹서먹한 시간, 서로에게 익숙지 않은 표현의 시간이었지만 이런 시간을 통하여 감사 표현을 할 수 있고 또 그 아름다운 마음을 표용하고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언니 오빠들의 여유가 있었던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또 아이들은 과일컵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예배를 마치고 나오신 어른들께 축스럽지만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고(폴리튼채플), 예쁘고 멋진 복장으로 한껏 멋을 내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멋쟁이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렸다(LA채플, 뱅리채플). 그 동안 매 주일 아침마다 연습하며 갈고 닦은 기악 합주팀은 어김없이 하나님께 악기로 찬양과 경배를 드렸다(뱅크채플).

유스 아이들을 위하여 정성과 사랑으로 추수 감사절 만찬을 준비해주신 집사님과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싸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마음과 그 도시락을 서로 나눠 먹으며 우리 아이들에게 나눔이란 거창하거나 부담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임을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 이어져갔다.

추수 감사 예배를 통한 우리 아이들의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기를, 행복해하시기를, 활짝 웃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온통 감사가 넘쳤던 바쁜 주일 하루였다.

| 박희정 기자 |



조용한 섬김·따뜻한 정, 사랑 가득한 공동체

■ 6교구(플러튼채플)

6교구 합동 구역예배가 최 진선 집사님 집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역의 멤버들이 성대하였습니다. 교구장님 내외분을 비롯하여 구역장님들, 그리고 구역원들 한분 한분이 모두 주안예교회의 기둥들이십니다. 교회의 전면에서 여러 사역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교회의 머슴(?)이신 이인범 장로님과 교회의 부역에서 교우들의 먹거리를 만드시느라 24시간, 365일 뛰고 달리시는 이계순 권사님이 교구원들을 위해서도 헌신하고 있습니다.

최진선, 최윤선 두 구역장님들은 조용히, 그리고 말없이 교회와 구역에서 하나님께서 맡



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교구장님 내외분을 보좌하고 구역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원들도 성가대원으로, 여 전도회 임원으로, 봉사부에서, 또는 교육부에서 모두 교회의 한 축을 받들어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역 모임이 성대해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박현동 목사님과 오승현 전도사님이 바쁘신 와중에도 참여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찬양은 최진선 집사님의 어머니이신 최영임 권사님이 좋아하시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말씀은 박 목사님께서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와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해주셨습니다. 여호와 한 분 만으로 충분하다

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과 생활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6교구와 구역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자 성대한 만찬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최진선 집사님이 준비하신 '포키'와 최윤선 집사님이 준비하신 떡, 그리고 구역원들이 각자 준비한 먹거리들이 푸짐함을 넘어선 성대함이었습니다.

이날은 특별히 서 미숙 집사님의 동생이신 서희진 자매님과 아들 부 윤성군이 한국에서 미국 여행 중에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은 아직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곧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만찬을 나누며 교제하는 구역원들과 식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대하게 넘쳐났습니다. | 조성운 기자 |



■ 척추세미나

자녀건강 유익한 정보

20일 주일 오후에 플러튼 채플에서 척추 측만증 세미나가 50여명의 학부모와 어린이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주일학교 니콜 이 전도사님의 사회와 박은래 장로님의 기도로 시작된 세미나에 강사는 최유림 성도님이 맡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교회에 봉사를 해야 한다는 어머니의 강력한 권유로 오늘 세미나를 열게 되었다는 최유림 성도는 자신이 미국에서는 소아 척추 신경전문의로서는 한국인 1호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척추 측만증이라 생소한 분야인 줄 알았는데 다름 아닌 척추에 관한 병이고 어린이들의 90%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척추가 휘어져있다고 합니다. 원인으로는 나쁜 자세입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생활화된 현대



에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병입니다. 척추가 S자로 휘거나 변형되기도 하고 갈비뼈가 돌출되기도 합니다. 증세로는 근육 불균형, 두통, 학습장애, 성격장애 등으로 나타납니다. 가벼운 증상(20%)은 운동이나 바른 자세로 책상에 앉고 책을 읽을 때 스탠드를 사용하는 것 등으로 고칠 수 있지만 심한 경우는 보조기 사용이나 물리치료, 또는 수술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상체가 기울어져 있거나 신발의 굽이 불균형하게 닳거나 하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골프는 이 병에 나쁘지만 수영, 요가는 권장되는 운동입니다. 집에서는 Gym Ball을 사용하면 척추 교정에 아주 좋습니다.

이날 20여명의 어린이들을 진단해주셨는데 놀랍게도 70%정도의 어린이에게서 척추 측만증이 발견되었습니다. 최 성도님은 앞으로 한 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열고 이상이 있는 어린이들을 무료로 진료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 조성운 기자 |

■ 주안에말씀



성경말씀 읽기 온집안 '낭랑'

벌써 마무리 되어지는 시간이 왔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다시 없을 복되고 풍요로운 날들이었다. 언제 또 하루에 열장씩이나 되는 말씀들을 읽어 볼 수 있을까... 특히 부부가 같이 하다보니 저녁이 되면 하나님 말씀을 거실에서도 안방에서도 들을 수 있으니 우리 가정에 말씀이 차고 넘치는 날들이었다고나 할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시간들이었다.

때로는 깨닫지 못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아~ 이것이었구나 하기도 했다.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 기도가 부족했음을 깨닫고... 내 심령에 심어지는 말씀이 있을 때는 눈물을 삼키기도 했다. 또 읽는 중간에 엉뚱한 생각들이 치고 올 때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한손을 높이 든 채 읽기도 했다. 그러면 감사하게도 잡생각들이 사라지곤 했다.

무엇보다 기뻐던 날은 세살박이 딸아이에게서 자기전에 "엄마, 하나님 말씀 읽어줘. 난 하나님 말씀이 좋아" 라는 말을 듣게 되었던 날이다. 하나님이 이 영혼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싶어 연신 딸아이의 볼에 뽀뽀를 해 뒀었다.

하나님 말씀은 참으로 달다. 육신의 피곤함으로 아... 오늘은 건너뛰고 내일 두배로 읽자... 스스로를 게으름으로 밀어 넣으려 할 때 어김없이 들려 오는 딸아이의 "엄마 하나님 말씀 읽어줘" 소리에 억지로 말씀을 읽기 시작한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어느새 나는 하나님 말씀에 빠져 들어 '아~ 참 좋다' 이라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날도 많았다.

하나님 말씀은 보물 창고다. 똑같은 말씀도 매번 다르게 다가온다. 특히 우리가 그냥 소소하게 지나갔을 수도 있는 삶의 일부분이 다소곳이 말씀 속에서 한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할 때면 어릴때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인형을 깊은 장농 속에서 발견하게 된 흥분이랄까....

하나님 말씀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심으로 만드셨는지를... 또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말함은 입아픈 일이지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입이 아프도록 말해지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것이다.

끝을 향해 달려 오면서 끊임없이 마음을 치고 들어오는 것은 '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동안 나도 모르게 나의 기도가 달라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 우리 가족의 삶을 당신의 나라를 위해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난 기도하고 또 기대한다. 앞으로 우리 가정이 쓰임받게 될 하나님의 일들을...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기에 합당한자의 자리에 우리 가족이 서 있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안에 말씀' 을 걸어오는 동안 항상 함께 해 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남지아나 집사
(플러튼채플)

■ 주안에빛



성경의 시대흐름·상황 한 눈에

길지 않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넣어주신 큰 복이 만물과 역사의 주인되신 주님의 섭리를 믿는 주심으로 인생길에 맞게 되는 상황과 환경에 대한 수용을 배우고, 그를 통하여 성령하나님께서 생각과 마음을 넓혀주심이라 감히 생각해본다.

LA채플에서 첫 말씀 훈련프로그램으로 새롭게 준비된 "주안의 빛" 이 열린다는 광고를 보며, 지금 나의 삶의 이 지점에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에 대한 설레이고 은혜에 대한 사모함으로 신청을 했고, 그 과정의 인도함을 받아 마침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

기존에 참여했던 주안에 빛을 통해서 성경말씀을 크게 하나로 보며 객관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았었다면, 이번에 진행된 주안의 빛은 성경 66권을 시대의 흐름과 줄거리, 메시지에 맞게 재배열하여 강의를 이루어짐으로서 더 가깝게 그 시대의 배경과 역사를 통해 함께 말씀을 보게되어 성경 한 권마다에 담겨진 주님의 뜻과 메시지에 이해가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 되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모든 사건과 상황과 인물들이 하나된 지점인 "하나님 나라" 를 향해 흐르며, 성경 말씀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이시며 나아가 그 말씀 앞에 나아온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이루어짐과 온전한 회복에 대한 메시지로 깨우쳐졌다.

특별히 교회시대를 공부할 때는 최근 주일설교 말씀과 겹쳐지며 예수님과 연합되어 성전되어진 교회인 나에게 그리고 각각의 교회들이 모여 이루어진 교회공동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곧,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구원하셔서 세우신 그 교회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며 이루어져가는 것임을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교회로서의 나,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예수님을 닮아내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을 전달해야 하는 나를 고민하며, 더 이상 나 자신의 나뭇 속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시선과 뜻으로 나의 시선과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옮겨지는 시간이 되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을 새기며 늘 말씀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 받아 하나님의 선하심이 삶 가운데 드러나지길 소원한다. 아울러, 말씀의 복된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진리로 함께 하여주심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는 자로 살게하신 은혜가 마음에 새겨진다. 김명자 집사(LA채플)



■ 주안에삶



신앙의 기초 든든히 놓아준 18주 과정 ‘은혜 충만’

금년 한해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훈련의 은혜가 넘치는 감사한 해였다.

지난 2월 2016 주안에삶 1권을 시작으로 하여, 6월 2권에 이어서, 지난 10월에 시작하여 지금 11월에 마치는 3권까지, 전 18과에 걸쳐서 다루어진 신앙 생활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복음부터 교리의 핵심들의 훈련은,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조목조목 점검하게 해주었고, 뒤죽박죽 떠먹지말 알던 각 개념들을 정확하게 정립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나는 주안에삶의 훈련을 큰 기대나 비중을 두지않고 가볍게 등록하게 되었다. 물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벧후 3:18)”는 성경의 말씀이, 늦각이로 그리스도인이 된(종교인이 아니고) 내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으로 늘 있었지만, 그 말씀에 감동하여서라기보다는 그냥 교회에서 평신도사역훈련을 위해 마련된 교육 커리큘럼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주안에삶”의 훈련을 시작하였다.

맨 처음 교재를 받고, 너무나 얇은 책의 볼륨과 대강 훑어본 교재 내용은 내가 이미 수십번 들어온 용어와 단어들이었고, 각 과의 연습문제들은 한살박이 예수쟁이라도 대답할 수있도록 쉬운 듯했다. 현대 “모르면 용감하다”했던가? 각과를 읽고 다시읽고 질문에 답

하고 묵상하고 소감문들을 쓰면서, 어째서 이 과정이 훈련 프로그램에 들어 있는지 절절히 이해하기 시작했다.

거듭남, 회개부터 교회공동체까지 아주 중요한 기초와 뼈대가 되는 복음과 교리들에 대하여 너무나 기초적이고 쉬운 질문과 설명으로, 알고있는것에 대한 확실한 점검을 함과 동시에 간단 명료하게 정리및 정립해주었으며 기억하기 쉽도록 반복하며 학습하게 접근방법은 내게는 큰 도움이 되었고 감사했다. 특히 제 3권은 각 과를 공부할 때마다, 우리교회의 행사들과(세례, 성찬 등등) 목사님의 설교 말씀(교인, 에클레시아 교회 등등)들이 시시적으로 거의 맞물려서, 실제와 학과의 내용이 오버랩됨에서 오는 크고 생생한 감동을 경험하게 하여서 너무나 감사했다.

또한 이 훈련동안 귀한 인도자님들과 급우들을 만나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는 워낙 Triple A의 성격에 얼굴을 많이 가리는데, 서먹한 급우들과의 처음의 만남이, 시간이 가면서 진솔한 간증과 믿음과 삶의 경험들을 나누는 동안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는 “동기간”이 되어갔고, 이제는 편안하게 서로 어깨 도닥거리주며 격려하며 붙들며 주며 이끌어주고 밀어주게 된것이 너무나 즐겁고 감사하다.

더욱이, 항상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약할까 왜 이렇게 흔들릴까, 왜 이런저런 회의와 의심이 올까”하고 늘 염려하고 불안해 왔는데, “아~~ 나만이 겪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나누게 되어, 내 마음이 많이 평온해짐과 동시에 나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가는데 큰 도움과 길잡이가 되어 주고있다. 결론적으로, 이 주안에삶의 평신도사역훈련이 내게는 참으로 귀중하고 실제적인 훈련이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리들에 대한 기초를 두리무실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알아, 내 믿음을 굳게 함과 동시에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고도 효과적으로 알려서, 그들도 내가 주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또 힘든 삶의 현장에서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인도하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체계적이고 주옥같은 훈련들을 계획하고 제공해 주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주안에교회,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님들과 리더님들에게 마음깊이 감사하며, 사랑하는 우리 주안의 공동체 지체 한분 한분에게 이 “주안에삶” 훈련을 강력히 추천한다.



김수정 피택권사
(밸리채플)

〈1면서 계속〉 고사리같은 손으로 앞마당에서 과일을 따기도 하고 엄마와 같이 장을 보러갔다 과일 몇 개를 더 사서 준비한 것들로 예배처를 예쁘게 장식하고는 예배 후 ICKIDZ 행사마다 수퍼맨처럼 나타나 모든 행사진행을 맡아 주었던 ICY 형, 오빠, 언니, 누나들에게 선물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ICY는 역시 어머니들의 정성 가득한 풍성한 음식으로 아이들에게 사랑과 감사를 전했고 아이들은 엄마의 넘치는 사랑만큼이나 맛있는 성찬을 즐겼다. 담당사역자인 이성우 전

도사 대신 설교를 하계된 성이삭 전도사는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듯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가슴 가득 담아냄과 동시에 그에 준하는 감사함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품어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요지의 말씀을 전했다. 우리가 숨을 쉬어야겠다 생각하고 하는 행동이 아니듯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그에 합당한 감사를 모든 사람에게 전파함이 진정한 THANKSGIVING일 것이다.

모든 성도가 추수감사예배를 위해 평소보다 정성껏 차려입었듯 멋지게 차려입은 아이들

이 예배후 친교관에 들어서자 많은 성도들은 부쩍 성숙해지고 생각보다 훨씬 환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띄었다. 이렇게 세상은 시끄럽다 못해 모래 위에 성을 쌓고 있던건 아닌지 심히 불안한 시절과 정반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를 호흡하는 우리의 미래는 오늘보다 밝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처럼 추수감사주일 예배는 우리에게 풍성하고 따뜻하며 하나님안에서의 안식을 느끼기에 충분한 예배였다.

〈3면서 계속〉은사를 받아 봉사의 일을 하면서 자신 스스로 기쁨을 누릴 수는 있지만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은사는 적절한 장소와 때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희생을 즐겁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본분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세상일들에 역사의식을 갖고 세계선교를 위해 앞장 서야하며 기도능력의 힘과 중요성을 매번 언급 하시면서 우리 주위의 작고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 자라나는 세대를 올바르게 세우는 것 또한 선교의 일임을 정의해주심에 선교란 해외에 나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해야 할 선교의 일들이 수없이 많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주안예교회를 이렇게 우뚝 말씀위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으나 적재적소에서 각자 맡은 일들을 책임을 다하며 말씀을 바로 자신의 삶에 옮기려하는 제직자들에게 피곤함은 오히려 기쁨으로 돌려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는 한 해로 마무리 되어짐을 기대해보니 마음 뿌듯함 금할 길 없었습니다.

2017년 새로운 임직자들 또한 각 사역구에서의 눈부신 활동을 기대해봅니다. 열심을 다해 말씀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 사역구에서 봉사하는 우리 주안예교회는 모든 성도가 말씀으로 무장한 하나된 군대로 더 승화된 영적성장, 더 많은 양적 부흥이 있게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 소그룹 모임을 위한 쿠키 아이디어

이번 크리스마스 소고기, 칠면조, 닭고기 보다도 한번쯤 한국 사람의 입맛에 맞았고 영양도 좋은 고등어 무우조림을 잡곡 밥과 상에 올려보면 어떨까? 주안예교회 주방의 안경숙 피택 권사의 비법을 소개한다. / 박창신 기자 /



고등어 무조림

재료

고등어 2마리, 무 6토막, 양파 1개, 대파1뿌리, 홍고추 2개, 할라피노 2개, 다시멸치 8개, 다시마1/2

양념:우동 soup 베이스(3큰술), 고추장(1큰술), 고추가루(3큰술) 에 청주, 미향, 마늘, 생강, 후추가루, 요리당 등을 기호대로 가미 합니다. <양념은 1시간 이상 숙성을 요함>

조리법

1. 생선은 내장부분을 깨끗이 씻어 바구니에 놓아둡니다.(살뜨물로 마지막 헹궈줍니다)
2. 멸치와 다시마와 무를 넣고 맛있게 국물을 끓입니다.
3. 잘라 놓은 무와 고등어를 만들어 놓은 양념과 버무립니다.
4. 맛있게 끓인 국물예

5. 양념과 버무린 무를 깔아 놓고
6. 그위에 양념과 버무린 고등어를 올리고 센 불로 끓입니다.
7. 적당하게 끓은후 양파를 올리고 중불로 은근히 줄입니다.
8. 어슷하게 썰어놓은 대파, 홍고추, 할라피노 순으로 예쁘게 올려준 후 약불에서 타지않도록 줄여줍니다.
9. 맛있게 졸여진 고등어와 무가 잘라지지 않도록 조심히 접시에 담은 후 고명으로 올려둔 야채와 적당한 국물과 함께 담아서 맛있게 드세요.

Tip/ 두부조림양념장: 우동 soup 베이스, 고추가루, 참기름, 참깨, 요리당, 마늘, 파, 약간의 미향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주일 예배

밸리채플/ 1부 오전 8:45, 2부 11:45
LA채플/ 1부 오전 8:45, 2부 10:30
플러튼채플/ 1부 오전 9:00, 2부 11:00

영성 집회

수요영성집회/ 저녁 7:45 플러튼채플
목요코람데오예배/ 저녁 7:15 LA채플
금요영성집회/ 저녁 7:45 밸리채플

새벽 예배

밸리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LA채플/ 새벽 5:30(월-금)
플러튼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밸리채플 Valley Chapel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LA채플 LA Chapel

3460 Wilshire Blvd, Ste 700, Los Angeles, CA 90010

플러튼채플 Fullerton Chapel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담임목사 설교방송 안내

■ 크리스천 헤럴드TV(CH 18.88

본방송: 매주(화) 7:00pm~7:45pm

재방송: 매주(토) 9:30am~10:15am

■ CTS 기독교TV/방송(directv 2092)

본방송: 매주(월) 8:00pm

재방송: 매주(토) 1:00pm

■ 라디오서울(AM 1650) 매주 목 11:00~11:30pm

“주안에” 2016년 12월호 원고 모집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입니다. 교구, 구역,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n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예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이광영(국장), 김산철, 나형철, 박창신, 박희정, 오병순, 오윤선, 오희경, 조성운, 조용대, 채은영(기자)

안동윤, 양영, 브라이언 조, 정인섭, 김다슬(사진) | 편집디자인: 김윤영